



하느님의 자비 상본 <2007, 아돌프 호와>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org/email-stfrancisk.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5,12-16

제2독서: 묵시 1,9-11 나.12-13.17-19

복음: 요한 20,19-31

청년 성가집 입당: 5

봉헌: 성가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체: 성가대 "Ave Verum"

파견: 222

### ◆ 화답송



(후렴) 주님은 좋으신분, 찬송 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시는 어머니께 참석  
이유를 여쭙었더니 답변인즉, 동창생들이 모이면 젊어서는  
직장, 배우자, 돈, 조금 지나서는 아이들, 며느리, 손주이야기  
뿐이었는데, 이제는 "외롭다, 아프다, 친구 얼굴 보니 좋다"  
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 이제야 친구들 같다고 하신다.  
그리고 보면 살아가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을 뵈 제자들이 기뻐한다.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과 기쁨을  
지니고 있는 열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토마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반면 토마 사도는  
고집스럽게도 제자들에 의해 체험된 '우리'의 신앙에 그냥  
묻어가지 않거부한다. 그는 다른 이들의 체험으로 들려주는  
'우리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만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나의  
하느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성경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하느님, 교회의 학자들, 주변의  
교우들이 전해주는 하느님 이외에 내가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나만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로는 열심히 주님의  
기도 때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버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때때로 부족한 내 신앙이 드러날까 봐서인지 우리의 모임  
들이 성경에서 배우고 교리서에서 배운 '우리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는 것 같다. 오늘 만큼은 내가 만난  
하느님, 내가 의심하는 하느님, 내가 실망한 하느님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의 하느님 이야기" 말이다. ♣

<2독서 후 - 복음 환호송 전에 바칩니다.>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곶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봉헌

민병택 베드로  
오세보 마리아  
유민석, 이태현 루피나, 유혁일  
이영우, 이태모  
주상희  
서안나  
정우득

카족  
채미재 마리아  
유희순 그레이스  
이상홍 스테파노  
경 가밀라  
김경련 울릿다  
성모회, 유 유스티나,  
윤 요한 외 5인

● 생미사

임순남 엘리자벳  
이규순 사비나  
청년 전례부  
윤숙경 마리아  
엄민재 마리아에스터,  
홍순재 마르티노, 홍현표 클레토  
임영애 스텔라, 김기례 레지나

이영혜 안젤라  
김수경 로사  
조소연 마르티나  
김지영 유스티나  
홍지혜 클로틸다  
바다의 별 Pr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한인쇄 KOR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4월 28일	조소연 마르티나	이민영 유스티나	조정한 제랄드	한창희 바로로	원혜경 아네스	박시현 박인영	이경은 이선아	강호영 박정자 김중선 김지영 이규완 이은경 이서원 김창훈
5월 5일	주세정 레이첼	정동주 유스토	박신희 리나	한창희 바로로	홍지혜 클로틸다	김미화 김은희	김가연 창동엽	유기호 김영숙 김은희 이지연 유정욱 장혜윤 이정현 진문자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오늘**은 불우이웃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경애원 후원금**은 다미아노 홀 입구에서 받습니다.

➢ **사목회의**가 2층 컨퍼런스 룸에서 11시 15분에 있습니다.

➢ **†의 길 & 성체 조배**가 매월 첫째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아래 성당에서 있습니다.

➢ **5월 친교실 봉사**는 청년 성가대, 찬양팀입니다.

◆ 공 지 사 항

➢ 5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1,8,22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19일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2019년 제21회 나눔의 바자회

일정 : 5월 19일(부활 제5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Broadway Btn31/32st, Korea Town  
문의 : 추진위원장 유기호 베네딕도 (914.787.0508)  
후원금 접수 : 친교실 재무팀 데스크

☆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깨끗이 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 5월 청년 미사 날짜 변경

바자회 준비 관계로, **5월 18일(토) 저녁 6시에 봉헌**됩니다.

➢ 바자회 추진 위원 회의

일시 : 5월 5일(주일) 11시 / 장소 : 교육관 3층 5호실

➢ 제 14회 성 프란치스코 집 바자회

성 프란치스코 집 개원 15주년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 나눔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 : 5월 5일(주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오후 5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장소 :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2019년 성모의 밤

성모성월인 5월에 일생동안 봉헌의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모님께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꽃 봉헌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5월 4일(토), 오후 7:30, 윗 성당

**꽃 봉헌 마감 : 오늘, 친교실 재무팀 데스크**

**\*단체별 꽃 봉헌금액은 \$30입니다.**

➢ 5월 '공동 목주기도 봉헌' 안내

가톨릭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정해서 신자들이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과 함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보다 더 다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목주기도와 더 친근해지길 기대하며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작 : 오전 9시, 윗 성당

날짜	주관단체	목주 기도
5일	울트레아	환희의 신비
12일	성모회 & 요셉회	빛의 신비
19일	꾸리아	고통의 신비
26일	성령기도회 & 양업회	영광의 신비

☆방법 : 목주의 기도 3단까지 봉헌한 후 성모성월기도로 마칩니다. 나머지 2단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 제 73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5월 25일(토) 오후 7시~27일(월) 오후 5시  
장소 : Double Tree By Hilton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ew Jersey  
문의 및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부부  
(646.201.0175 / 646.808.7322)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460
감사헌금	\$ 4,846
합 계	\$ 6,306

❖ **교무금 :**

주현경 김한숙 엄기숙 장묵석 전마가렛 박정호 강혜숙  
채봉석 송명자 김승한 김성중 김우현 박희정 유민환  
이영숙 김지혜 이경수 김차순

❖ **감사헌금 :**

강혜숙 정현숙 세레·견진·첫영성체자 일동

❖ **성모의 밤 꽃 봉헌 : \$ 130**  
사목회 성모회 요셉회 강혜숙

**“성경 맞들이기” - 이스라엘 달력과 하루 시간 I**

이스라엘 사람들과 근동 유목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루라고 하면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였다. 이런 계산법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아침과 저녁으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유대인들은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즉 어두움이 드리워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레고리오력은 지구가 매년 365.25일 만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돈다는 태양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양력이 아니고 한 달을 29일 또는 30일로 계산하는 월력을 사용했다. 월력에서 한 달의 시작은 29일째 저녁에 초승달이 뜨기 시작하는 때부터다. 만약에 29일째에 초승달이 뜨지 않으면 자연히 그 달은 30일째 저녁에 시작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월력을 춘분이나 추분에 맞춰 사용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월력과 윤달이 우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유대인들의 월력이 서양의 양력보다는 우리 음력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월력에서는 새 달이 뜨면 한 달이 시작하고 보름달이 되면 그 달 중간이 된다. 그리고 달이 그믐이 되면 한 달이 끝난다. 따라서 일 년은 12개월이고, 각 월은 29일이나 혹은 30일이다. 이것을 12달로 계산하면 일 년은 353일이 된다. 이 때 1년의 길이는 태양력의 365.25일과 꽤 차이가 난다. 유대인들은 이 차이를 윤년으로 해결했다. 이처럼 유대력과 그레고리오력은 19년마다 분명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졌다. 윤년은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유대력의 달 이름들은 실제로 바빌론에서 사용한 것들이며,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였다. 유대인들이 처음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는 가나안 사람들의 달 이름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오랫동안 단순히 '첫째 달' 또는 '둘째 달'과 같은 방식으로 불렀다. 달 이름은 언제나 가을보다는 봄, 더 정확하게 춘분을 기점으로 정했다. 곧 첫째 달은 춘분이 낀 달이고, 둘째 달은 춘분이 낀 달의 다음 달이다. 그러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는 바빌론 식으로 사용했다.

바빌론 유배 전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대로 계절에 따라 달에 이름을 붙였는데 구약성경에 달의 이름이 나온다. "너희는 아빍 달 바로 오늘 나왔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거든, 이달에 이러한 예식을 올려야 한다."(탈출 13,4-5 참조). 이처럼 아빍 달은 성경에서 언제나 과월절과 연관되어 나온다. 둘째 달인 지우 달과 여덟째 달인 불 달, 일곱째 달인 에타님 달은 솔로몬 성전 봉헌과 관계되는 성경에 등장한다(1열왕 6,37-38 ; 8,2 참조).

가나안식으로 불린 달 이름의 뜻은 모두 농사 절기에 따른 자연 현상과 관계가 있었다. 봄의 첫 번째 달인 아빍 달은 '푸른 밀 이삭'(탈출 13,4 참조), 봄의 두 번째 달 지우 달은 봄을 나타내는 '찬란함' 또는 '밝음'(1열왕 6,1,37)을 나타낸다. 또 가을의 에타님 달은 '흐르는 개울'(1열왕 8,2), 불 달은 '소출' 또는 '가축'(1열왕 6,38)을 의미한다(정태현 신부 지음, <성서입문> 82-83쪽 참조).

유대인들은 유배 이후에는 바빌론식 달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 유대인들의 달 계산은 유월절 축일이 든 '니산 달'로 시작했다. 성경에는 생소한 달 이름이 나오고 달의 순서도 다르다. 대략적인 유대인들의 월력을 알게 되면 유대인의 삶과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구약의 달력

민간력	전례력	바빌론식 이름	가나안식 이름	양력	절기
1월	7월	티슈리 달	에타님 달(1열왕 8,2)	9-10월	초막절
2월	8월	마르헤슈반 달	불 달(1열왕 6,38)	10-11월	
3월	9월	기슬레우 달(즈카 7,1)		11-12월	성전봉헌절
4월	10월	테벳 달(에스 2,16)		12-1월	
5월	11월	스밋 달(즈카 1,7)		1-2월	
6월	12월	아다르 달(에스 6,15)		2-3월	푸림절
7월	1월	니산 달(느헤 2,1)	아빍 달(탈출 13,4)	3-4월	파스카
8월	2월	이야르 달	지우 달(1열왕 6,1)	4-5월	
9월	3월	시완 달(에스 8,9)		5-6월	오순절
10월	4월	타무즈 달		6-7월	
11월	5월	아브 달		7-8월	
12월	6월	엘룰 달(느헤 6,15)		8-9월	

1. 달력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